

UAE·바레인, 이스라엘 국가 인정

팔레스타인·이란 “이슬람 세계 배신 행위”



▲ 이스라엘·UAE·바레인이 관계 정상화 협정을 체결했다. 사진=mbc뉴스 캡처

걸프 지역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고 관계를 정상화했다. 이스라엘이 걸프 지역 아랍국가로부터 국가로 인정받고, 관계를 정상화한 것은 1948년 건국 이후 처음이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셰이크 압둘라 빈 자예드 알나흐얀 UAE 외무장관, 압둘라티프 알자야니 바레인 외무장관은 전날 미 백악관에서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 서명식을 거행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공통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차용한 이 협정은 3국간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공동의 이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호관계를 강화한다는 개괄적인 내용이 담겼다. 상대 종교와 문화 존중, 극단주의 종식 등이 포함됐지만 쟁점인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립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들의 관계 정상화를 중재한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도 ‘증인’ 자격으로 해당 문서에 서명했다.

이스라엘은 걸프 지역 아랍국가들과 이른바 ‘건국전쟁’을 거쳐 1948년 영국령 팔레스타인에 수립됐다. 걸프 지역 아랍국가들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지지하며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4차례에 걸쳐 이른바 중동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하지만 시아파 이슬람 종주국인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중재로 UAE와 바레인, 이집트와 요르단 등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속속 손을 잡고 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협정 체결 직후 “이스라엘이 점령지에서 철수할 때까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달성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도 UAE와 바레인을 향해 “이슬람 세계를 배신했다.”고 비난했다.

대만 두고 미·중 갈등 격화

미, 경협·무기 판매 vs 중, 내정 간섭

대만을 사이에 놓고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이 대만에 잇따라 고위급을 보내고 경제 협력을 추진하며 무기 판매를 확대하자, 중국이 미국과 대만 모두에게 경고하고 나섰다.



▲ F-16 전투기. 대만이 미국 F-16 전투기 최신 모델 수십 대를 사들이는 계약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shutterstock

키스 크라크 미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지난 19일 열린 고리딩후이 전 대만 총통의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부터 사흘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했다. 1979년 미국과 대만의 단교 이후 국무부 인사로는 최고위급 방문이자 지난달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전례 없이 두 달 연속 미 고위 관료가 대만을 찾은 것이다. 크라크 차관은 이 기간 동안 다면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했다.

미국은 또 대만에 F-16V전투기, 패트리어트미사일(PAC-3) 판매에 이어 크루즈미사일과 드론 등으로 구성된 무기 7종을 한꺼번에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이 1979년 대만과 단교 이후 중국과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대만 무기 판매에 신중했었던 과거 선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더해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인정한다면 중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게 된다.

중국은 중국 본토와 대만, 홍콩, 마

카오를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국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외국 정부 관계자가 중국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대만을 방문하거나 교류를 갖는 것을 내정 간섭이라고 판단한다. 대만의 군사력 증강도 마찬가지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미국과 대만은 유대관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대만해협에 계속해서 돌을 던지다가 선을 넘는다면 이 돌들은 어뢰가 돼 대만해협의 위험과 역내 불확실성을 급격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대만이 주권국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면서 “그들이 탈중국화를 추구하고 미국을 끌어들이며 보호를 받는 것은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거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플러튼 | 세리토스 | 사이프레스 | 라팔마 | 부에나팍 | 라미라다 | 라하브라

REDPOINT REALTY

17년 탐에이전트 경험으로 잘 팔고 사드리겠습니다!!!

- ✓ 한국일보 칼럼니스트 (Since 2004~)
- ✓ 레드포인트 부동산 명예 부사장



카니 정 | DRE 01433245
714-244-7800
 656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p>독점 부에나팍 타운홈</p> <p>방2 화2 게이트단지 로스코요테 골프장 근접, 하이실링 나무마루, 나무가 우거진 페티오 써니힐 하이, 렌트 (\$2,700) 잘 나가는 투자용으로도 좋은 매물. 마켓에 없는 집 \$619,000</p>	<p>독점 플러튼</p> <p>Greens 단지내 가장 큰 모델 방3 + Den 화2.5 건평 2,070 SF 하이실링, 베이윈도우, 리세스라이트 탁트인 전망, 발코니, 플러튼 최고 학교 \$689,000</p>	<p>독점 라하브라</p> <p>2019년생 예쁜 새단지, 2,000sf, 방4 화3.5 업그레이드 많이한 새 집, 좋은 위치 \$729,000</p>	<p>독점 부에나팍 창고 리스</p> <p>8,800SF 5FW와 Artesia Blvd가 만나는 상권 최고 사무실도 겸함 \$11,000</p>
<p>독점 다이아몬드 바</p> <p>방4 화2 리모델한 단층집 넓은 뒷마당 밝고 환한 남향집 리세스라이트, 크라운 몰딩 좋은 학교 \$789,999</p>	<p>사이프레스</p> <p>방3 화1.5 탱글우드 타운홈 럭셔리 주니어 사이프레스 하이 단지내 좋은 가격 \$495,000</p>	<p>부에나팍</p> <p>방2 화2, 게이트단지 로스코요테 골프단지 근접 하이실링, 써니힐 하이 \$579,000</p>	<p>플러튼</p> <p>게이트 단지, 방4 화2.5 1998년생, 넓은 부역, 마켓 샵센터 근접 단지 내 놀이터, 수영장 \$747,000</p>

- 부에나팍 : \$875,000
 - 부에나팍 : \$590,000
 - 라팔마 : \$690,000
 - 라미라다 : \$773,000
 - 라미라다 : \$317,000
- 방4 화3, 2005년생 H mart 옆, 리세스라이트, 써니힐하이
 방3 화2.5, 1999년생 게이트 단지, 업그레이드 많이 한 예쁜 집
 방4 화2, 단층집, 하이실링, 새마루, 리세스 라이트
 방3 화2.5, 게이트 단지, 1997년생, 우드셔터, 골프단지 근접
 방1 화1, 시니어 타운홈, 24시간 시큐리티, 마켓 근접